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부정하기 비교*

정소영(밝은연세소아정신과), 김정미(나사렛대)

<차 례>

- | | |
|------------------|------------------------------------|
| 1. 서론 | 3. 연구결과 |
| 2. 연구방법 | 3.1. 정신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부정하기 산출율 |
| 2.1. 연구대상 | 3.2. 정신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 |
| 2.2. 실험과제 및 절차 | 4. 결론 및 논의 |
| 2.3. 자료 분석 및 신뢰도 | |

<Abstract>

Comparison in Negation of the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Normal Children

So-Young Jeong, Jung-Mee Kim

In this study, children with MR were compared with normal children in overall production rate and production types of six semantic categories of negation. For this purpose, 10 children with MR and another 10 language-age matched normal children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children with MR showed significantly low overall production rate, compared with normal children. Two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nial, disability, ignorance, prohibition and rejection except nonexistence. Second, in production type, the children with MR tended to use more gestures, and in comparison, normal children used more 'mixed types'.

* Keywords: Mental retardation, Negation, Semantic categories.

1. 서론

부정하기는 자신의 의사표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결정하거나 존재의 유무를 밝히는 것으로[1] 아동의 언어발달과정에서 이른 시기에 습득하는 기능 중의 하나이다. 아동들은 이미 영아기 때 고개를 흔들거나 우는 행위로 사건을 거부하고 부정한다[2]. 이렇듯 아동들이 부정하기를 일찍 습득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다양한 자극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조정하거나 타협하며, 청자와 정보를 많이 공유하여 의사소통기능의 발달을 이루어 나가며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 예방하는 것과 같이 부정하기의 기능이 의사소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부정하기를 산출하는 맥락은 다양하다.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화자가 부정을 산출했을 때의 맥락을 중시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비슷한 의도로 산출된 부정을 한 가지 범주로 묶는데 주 관심이 있다. Bloom[3]에 의하면 부정하기는 존재의 부정, 거부, 부인과 같이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발달순서는 존재의 부정> 거부> 부인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Choi[4]는 한국어권, 일어권, 프랑스어권에 사는 아동들의 부정하기를 살펴본 결과 존재의 부정, 금지, 거부, 못함, 부인, 실패, 모름, 추론부정, 규범부정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였다(<부록 1> 참조). 부정하기의 의미범주의 출현 순서를 살펴보면 영어권이나 한국어권이나 모두 존재의 부정, 거부 등이 일찍 출현하였다. 특히 한국어권 아동의 부정하기의 발달 순서를 살펴보면 존재의 부정> 거부> 못함> 모름> 두려움> 부인> 금지의 순으로 나타났다[4].

일반아동은 2-3세가 되면 부정하기를 대부분 습득하고 다양한 범주의 부정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2][4][5]. 언어이전기의 아동들은 몸짓과 억양, 표정을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하다가 한 낱말 단계에서는 한 귀절말(holophrase)로 부정을 표현하고 만 2세가 넘으면 성인과 같이 다양한 기능의 부정표현이 가능해진다. 부정하기가 만 2세가 넘어야 숙달되는 것은 인지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2], 부정표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의 인지발달의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6].

정신지체아동들은 인지능력의 결함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적응 행동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한다[7]. 정신지체아동의 언어발달을 살펴보면 발화량, 발화속도, 발화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아동과 유사하게 발달한다. 정신지체 아동들은 의미론측면에서는 어휘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문적 측면에서는 보다 짧고 단순한 문장을 만들고 수식 및 관계절이 덜 나타난다. 화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아동은 몸짓을 많이 사용하며 대화 시 소극적인 역할을 맡는 경향이 많고 명료화 기술이 떨어진다[8]. 이와 같이 정신지체아동들은 언어영역의 전반에 걸쳐 일반아동에 비하여 습득 및 표현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하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아동에 비하여 습득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지체아동은 인지능력에 따라 수행력이 좌우되는 부정의 대안표현에서 오반응이 높았고 수행력이 낮았으며[9]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부정하기 산출도 낮았다[10][11][12]. 또한 일반아동은 만 2세가 넘으면 발화를 위주로 부정하기를 산출하는 반면[2] 정신지체아동은 부정하기를 포함하여 의사소통기능 전반에 걸쳐 몸짓을 사용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이다[7].

정신지체 아동의 부정하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옥[9]이 부인하기의 대안표현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바가 있으나 의미범주가 부인하기로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범주의 부정표현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연구들은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으로서의 부정하기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부정하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10][12].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들을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하기 발달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산출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아동집단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하기 전체 산출율과 의미범주별 산출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정신지체아동 집단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하기 산출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 사는 정신지체아동 10명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신지체아동들은 AAMR[13]의 기준에 따라 정신지체로 진단된 아동들이었으며 언어연령이 3세-3세 11개월인 아동들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정하기의 기능이 3세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아동집단의 평균 연령은 10.90세로 10명 모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5명은 부모님과 거주하는 아동이었고 5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이었다. 일반아동집단은 정신지체아동들과 일대일 비교하여 그림어휘력검사[14]의 결과가 ± 5 점 이내에 있는 아동들로 선정하였고 신체 및 정서적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며 보육교사와 부모가 모두 정상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한 아동들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두 집단의 언어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어휘력검사 원점수로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2.55, p > .05$).

2.2. 실험과제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각 아동이 부정하기 기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유도기법(elicitation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아동들에게 동일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대일 상황에서 연구자가 놀이의 순서를 숙지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도기법에서 사용한 놀이와 문맥은 예비 연구를 통해 부정하기의 다양한 의미범주가 산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에서 대상 아동들에게 절차상 하나의 의미범주 당 세 가지 상황을 제공하여 하나의 의미범주가 산출할 수 있도록 3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 번째 기회에는 간접적으로 언어단서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부록 2>에서와 같이 ‘존재의 부정’을 산출하기 위해 첫 번째 기회에서는 마술 놀이를 하면서 물건을 감춘 다음 “없다”를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두 번째 기회에서는 대상물을 바꾸어 마술놀이로 부정을 유도하였고 세 번째 기회에서는 “00가 있어요?”라고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여 아동이 “없어요”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절차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의미범주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친밀감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동들을 총 3회기 방문을 통해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한 마지막 방문에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 1회기에는 아동과 인사하기, 간단한 대화, 음식 나눠먹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2회기에는 그림어휘력검사[14]를 실시하였으며 3회기에는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7월 6일 - 8월 30일까지였으며 소요된 시간은 각 아동당 15-20분 정도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디지털 캠코더(삼성 VM-C1500)와 오디오 녹음기(Sony M-455)로 녹화 및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오디오와 캠코더를 실험 전에 설치하고 아동이 촬영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으로 가렸다. 연구자는 아동이 유도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으며 객관적인 태도로 아동에게 반응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도구는 고무찰흙, 색연필, 스케치북, 동화책, 병원놀이세트, 매운 음식, 빨간 손수건 등이었다.

2.3. 자료분석 및 신뢰도

2.3.1. 자료 전사

자료 전사는 녹화 및 녹음된 자료를 미리 구성한 틀에 의거하여 3일 이내에 한글로 전사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이 거부하기를 산출하면 미리 제작한 틀의 해

당란에 발화를 기록하고 괄호 안에 몸짓, 표정, 억양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무반응은 “NR”로 표기하였으며 의미가 없는 발화는 “기타”에 표기하였다.

2.3.2.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부정하기 의미범주 분석들은 Choi[4]의 분류에 근거하여, 유도가 어렵고 비교적 발달후기에 나타나는 범주들은 제외하고 ‘존재의 부정, 금지, 부인, 모름, 못함, 거부’와 같이 총 6개의 의미범주에 초점을 두었다(<부록 1> 참조). 또한, 부정하기 표현 산출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Coggins & Carpenter[15]의 분류 체계를 기초하여 ‘혼합(발화 + 몸짓), 발화, 몸짓, 기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부록 3> 참조).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과 의미범주별 부정하기 산출률, 전체 부정하기 산출유형 및 의미범주별 산출유형 산출율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정하기 산출률은 아동이 산출한 부정하기 빈도수를 산출 가능한 총 빈도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였으며 부정하기 의미범주별 산출률은 아동이 산출한 의미범주별 빈도수를 의미범주별 산출 가능한 총 빈도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인 정신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 두 번째 질문인 부정하기 유형별 산출율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 검정을 실시하였다.

2.3.3. 신뢰도

신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연구자가 대상아동에게 각 의미범주 당 3회의 기회를 아동에게 동등하게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각 아동의 산출유형에 대한 분류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 언어치료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인에게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4명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2개 항목의 평균 신뢰도는 .98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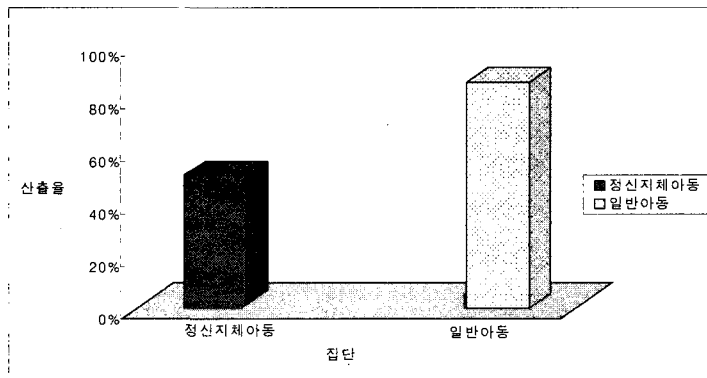
3. 연구 결과

3.1. 정신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부정하기 산출율

3.1.1.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

전체 부정하기 산출률을 살펴본 결과 정신지체아동 집단은 50.55 %, 일반아동

집단은 86.05 %(<그림 1> 참조)로 일반아동집단이 정인지체아동집단보다 전체부정하기 산출률이 높았으며, t-검정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7.2, p < .05$).



<그림 1>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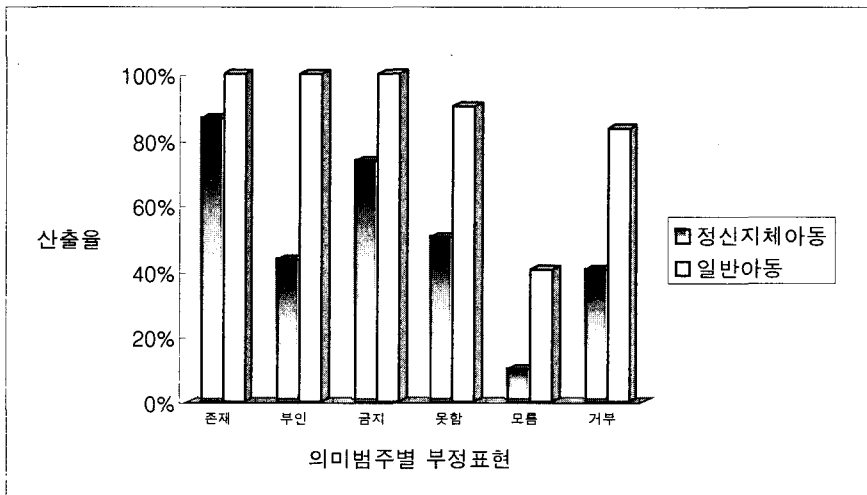
3.1.2. 의미범주별 부정하기 산출율

의미범주별로 아동들의 수행을 살펴본 결과, 정인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 모두 ‘존재의 부정’, ‘금지하기’, 부정범주에서 높은 산출율을 보인 반면 ‘부인하기’, ‘모름’, ‘못함’ 의미범주에서는 두 집단간 산출율의 차이가 현저하였다(<그림 2> 참조). 두 집단 간에 의미범주별로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존재의 부정’을 제외한 모든 의미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의미범주별 부정하기 산출율의 서술통계 및 t-검정결과

의미범주	정인지체아동집단		일반아동집단		t-값
	산출율(%)	표준편차	산출율(%)	표준편차	
존재의 부정	86.67	32.20	100.00	0.00	1.30
부인하기	43.33	38.50	100.00	0.00	4.63*
금지하기	73.34	30.63	100.00	0.00	2.75*
못 함	50.00	23.57	90.00	16.10	4.43*
모름	10.00	16.10	40.00	37.84	2.30*
거부하기	40.00	26.29	83.00	28.33	3.54*

* $p < .05$



<그림 2> 의미범주별 부정하기 산출율

3.2. 정신지체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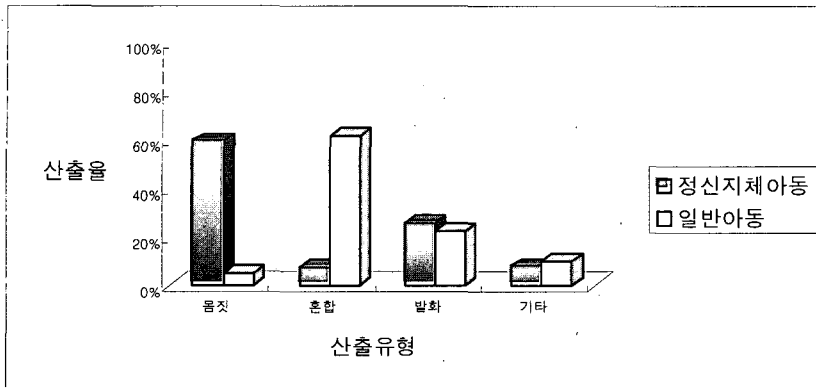
3.2.1. 전체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

정신지체아동집단은 ‘몸짓’유형이 가장 높게 산출된 것에 반하여 일반아동집단은 ‘혼합’유형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그림 3> 참조). 두 집단 간 전체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몸짓’과 ‘혼합’ 유형에서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전체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 서술 통계값 및 t-검정결과

유형	정신지체아동집단		일반아동집단		t - 값
	산출율(%)	표준편차	산출율(%)	표준편차	
몸짓	59.65	23.92	5.02	7.88	6.86*
혼합	7.09	9.71	62.81	11.88	-11.48*
발화	25.62	22.16	22.40	11.20	.41
기타	7.62	11.99	9.76	9.24	.44

* p < .05



<그림 3> 전체 부정하기 유형 산출률

4. 논의 및 결론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정신지체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과 의미범주별 산출률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지체아동들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집단보다 생활연령이 평균 8세 이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집단에 비하여 전체 부정하기 산출율과, 대부분의 의미범주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은 산출률을 보였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정신지체아동들의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아동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습득한 언어기술을 덜 사용하며, 대화참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지체아동들도 일반아동들과 유사한 언어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기의 표현에 어려움을 보였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의 대상선정을 위한 언어능력평가에 있어서 평균발화길이(MLU)와 같은 산출능력이 아니고 그림 어휘력검사와 같은 이해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아동에 비해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의 편차가 큰 정신지체아동들이 부정하기 표현율에서 훨씬 더 낮은 수행을 보였을 것이다.

각 의미범주별 부정하기 산출률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아동집단은 6개 의미범주 중 '존재의 부정'을 제외한 5개 의미범주에서 일반아동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산출율을 보였다. 또한 일반아동들은 존재의 부정, 부인 및 금지의 기능에는 이미 숙달하였고, 못함, 거부, 모름의 순서로 산출 양상을 보인 반면, 정신지체 아동들은 존재의 부정, 금지, 못함, 부인, 거부, 모름의 순서로 산출양상을 보였다.

정신지체아동들의 언어적 특성은 언어습득에 있어서 일반아동들과 유사하나 반면 발달속도가 지체되어 있다는 것이다[16].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존재의 부정과 같은 의미범주는 일반아동집단아동들이 초기에 습득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정신지체 아동들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름’의 의미범주는 일반아동집단과 정신지체아동집단의 아동들 모두 가장 수행율이 낮아 정신지체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발달속도는 느리나 어느 정도 유사한 발달형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두 집단 모두 ‘모름’의 의미범주에서의 수행율이 낮았던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상황이 아닌 유도상황이 아동들의 ‘모름’을 유도하기에는 부적절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정하기는 주변 환경의 다양한 자극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조정하거나 타협하며, 청자와 정보를 많이 공유하여 의사소통기능의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결국 부정하기 발달의 어려움은 정신지체아동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임상가들은 정신지체아동들의 의사소통중재 시 부정하기의 다양한 의미범주를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정신지체아동 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전체 부정하기 유형 산출률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지체아동 집단은 몸짓유형을 가장 많이 산출하였고 반면에 일반아동집단에서는 혼합과 발화유형을 가장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부정하기 유형 산출율의 통계적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몸짓과, 혼합 산출유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집단이 부정하기 산출시 혼합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부정하기는 발화만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정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몸짓이 동반되는 언어적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정신지체아동집단은 몸짓 유형의 출현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지체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비상정적 몸짓 및 발성으로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7]. 이러한 결과는 정신지체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에 비하여 보다 덜 정교화 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지체아동 집단이 의사소통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낮은 산출유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에 대한 중재가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좀더 정교화 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구절차상의 문제로, 아동들에게 부정하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유도기법을 사용하였다. 자연스러운 관찰이 아닌 구조화된 유도기법은 아동들의 일상적 의사소통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아동들에게 각 의미범주 당 3회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3회의 기회는 아동들에게는 자신의 의사표현능력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둘째, 대상아동인 정신지체아동들의 반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불리한 사회적 환경이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1] 이한현, “부정에 관한 언어 화용론적 고찰”, *불어학 연구*, Vol. 10, pp. 49-80, 1992.
- [2] 김유경, *한국어 사용 어린이에게서 관찰한 부정하기의 출현과 발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3] L. Bloom, *Language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4] S. Choi, *A Cross 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of Negation in English, French, and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1986.
- [5] 이승복, *어린이 언어에서 부정문의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6] 이승복, “초기 어린이 말에서 부정하기의 발달”,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29권, pp.501-507, 1985.
- [7] 김영태,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2003.
- [8] 이승환 외, *의사소통장애개론*, 서울: 하나의학사, 2002.
- [9] 김정옥, *정신지체 아동의 부정에 대한 대안표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10] 신희정, *정신지체 아동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1] 최은경, *3-5세 아동의 부정문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2] 최은희, *경중도 정신지체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3]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9th ed.)*. Washinton, D.C.: Author, 1992.
- [14]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
- [15] T. E. Coggins, R. L. Capenter, “The communication intention inventory: a system for observing and coding children’s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Vol. 2, pp.235-251, 1981.
- [16] R. Owen,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Treatment*, Neehamheights, MA: Allyn & Bacon, 1998.

<부록 1> 부정하기 의미범주 분류 및 정의

의미범주	정 의
존재의 부정 (nonexistence)	아동이 주변 환경에서 사물이나 사람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현재 존재하지 않을 때의 부정하기. 예) 고모와 물건들을 숨기는 놀이를 하며 고모가 숨긴 성냥개비를 찾다가 “없다”라고 말함.
거부 (rejection)	아동이 사물이나 사람과 같이 어떠한 것에 의해 제한되거나 속박되는 것을 거절할 때의 부정하기. 예) 엄마가 침대에 눕히려는데 침대 난간에 매달리며 “싫어”
부인 (denial)	X의 주장이나 의견을 부정하는 것으로 진실-기능적인 의미를 가짐. 예) 아빠가 막대기 두개와 원통 하나를 놓고 “같니?”라고 말하니 “아니야”라고 말함.
금지 (prohibition)	X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아동이 X의 행동에 반대할 때의 부정하기. 예) 아빠가 장난감을 가지고 준규 앞으로 미니까 “오지마! 가!”라고 말함.
실패 (failure)	아동이 특별한 목표를 시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하기. 이때 아동은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예) 콘센트에 TV 플러그를 끼우려다 안돼니까 “안돼”라고 함.
모름 (ignorance)	아동이 X가 물어본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의 부정하기. 예) 아빠가 그림책을 보는데 아빠가 그림을 가리키며 뭐냐고 물으니까 “몰라”라고 말함.
못 함 (inability)	아동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하기로 실패하기와 다른 것은 못함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함. 예) 요구르트 병에 약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엄마한테 내밀며 “안돼”라고 말함.

* Choi(1986), 김유경(1994)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함. (X는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사람을 지칭함.)

<부록 2> 유도절차

상황	임상가	의미범주	아동산출형태
	안녕!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그렇구나.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아보자		
	와 이게 뭐야. 케이크네 선생님이랑 생일잔치 해보자.		
주스를 보여준다.	생일에 뭐먹어요?		
	선생님이랑 주스 먹을까?		
	선생님이 마술로 주스 만들어볼게.		
손에는 주스가 없다.	하나 둘 셋.	존재-①	
다른 쪽에서 사탕을 꺼내 보여준다.	어! 여기 있네.		
	자 이번엔 사탕이다.		
사탕을 준다.	하나 둘 셋 사탕 여기 있어요.		
	이번엔 초코렛 만들어볼게.		
손 안에는 초코렛이 없다.	하나 둘 셋 짜잔.	존재-②	
	어 여기 있다.		
	자 우리 OO 뭐줄까?		
아동이 고른 것 아닌 영똥한 것 준다.	이거?	부인-①	
	아니야? 그럼 어떤 거야?		
	어 그렇구나.		
	또 어떤 것 줄까?		
올바른 것을 준다.	아 이거.		
	맛있게 먹어보자.		
	다 먹었나요?		
	그래. 우리 맛있게 먹었다.		

상황	임상가	의미범주	아동산출형태
아동의 옷을 만진다.	와! 이 옷 예쁘다. 선생님이 가져가야지.	금지-①	
사물을 가져가는 척 한다.	선생님 이거 가져갈래.	금지-②	
	알았어. 이제 뭐하지 아! 우리 그림 그리자.		
	무슨 색 줄까?		
영똥한 것을 준다.	아 이거	부인-②	
	미안. 자 이번엔 우리 다른 것으로 그려보자. 어떤 것 줄까요?		
고장 난 볼펜과 색이 안나오는 볼펜을 준다.	자! 여기.	못함-①	

<부록 3> 부정하기 산출유형 및 정의

분류	정의
몸짓 (gesture)	비언어적 행동으로 의도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
몸짓+발화 (gesture/vocal)	비언어적 행동인 몸짓과 함께 간단한 소리 혹은 단어를 사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면 아동이 손가락으로 사물을 지적하고 응시하면서 “오 오” 소리를 내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의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음.
발화 (vocal)	참조적인 단어로서 사물과 사람을 지칭하거나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동물소리도 발화로 인정됨. 예를 들면 호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기위해 “어흥”을 발성하는 것.
기타 (the others)	발화유형이 몸짓, 혼합, 발화, 무반응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돌발행위, 무관한 발화가 속함.
무반응 (no response)	연구자가 부정하기를 유도하였으나 아동이 30초에서 1분 동안 동작 및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얼거림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즉 아무 반응이 없었을 경우.

* Coggins & Carpenter(1976)의 연구를 참조하여 변용함.

접수일자: 2005년 11월 22일

게재결정: 2005년 12월 9일

▶ 정소영(So-Young Jeong)

주소: 충남 아산시 신탄면 남성리 산마을 104동 1502호

소속: 밝은연세소아정신과

전화: 041-664-0366

E-mail: carrotis@hanmail.net

▶ 김정미(Jung-Mee Kim) : 교신저자

주소: 330-718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456번지 나사렛대학교

소속: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언어치료학전공

전화: 041) 570-1411

E-mail: jmkim@kornu.ac.kr